

“도내 14개 시군 전역서 입시설명회 열도록 조치”

서거석 교육감, 순창서 학부모·교직원과 공감 토크

서거석 교육감이 순창 지역 학부모·교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순창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작은학교 살리기 △인사제도 개편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 학부모는 “아주작은학교가 통합되면 아이들 통학 수단이냐 기숙사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한 텐데,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순창에는 여중 2개와 남중 2개가 있는데,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달라”고 물었다.

이 외에도 “대학 입시설명회를 군 지역에서도 개최해달라”,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아주작은학교가 통합되면 멀리 있는 아이들이 버스나 택시 등으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학교 기숙사 생활도 쾌적하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또 남녀공학 신설과 관련해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하향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부모들의 논의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공론화를 거쳐 상향식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학 입시설명회에 대해 “그동안 전주, 군산, 익산에서만 했는데, 앞으로는 도내 14개 시군 어디에서나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성 기자



지난 27일 순창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



초등돌봄전담사 노동시간 합의 전북도교육청은 28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초등돌봄전담사 노동시간 확대 및 교원업무 경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학원생·유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전북대, 잡 케어(Job Fair) 29~30일 개최... 한전·SK C&C·카카오 등 10개 기업 참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9~30일 이틀간 진수당 일원에서 대학원생과 유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잡케어(Job Fa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잡케어는 그간 학부모 중심이었던 기업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대학원생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고학력 대학원생과 한국 정착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이 더욱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잡케어에서는 SK C&C, 카카오, (주)하림, LS일렉트릭, 전북테크노파크, LG전자, 한국전력공사, 한국탄소산업

진흥원, 전북은행, 광전자(주) 등 10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별 전공별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관계자가 직접 최신 취업 트렌드를 설명하고, 관련 직무와 업종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개별 기업의 채용 절차와 기준 등 고학력 대학원생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면접 대비 퍼스널 컬러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전공과 부합하는 다양한 기업 및 취업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취업하고 정착을

꿈꾸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좋은 취업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철규 대학원장 겸 연구부총장은 “그간 학부모 중심의 잡케어에서 대학원생과 유학생에게도 취업지원의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이번 행사의 의미가 있다”며 “역량 있는 우리대학의 인재들이 원하는 직무를 꼭 찾길 바라며, 우리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또한 좋은 일자리를 만나 한국에 정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잡케어와 관련한 문의는 전북대학교 대학원교학부 BK혁신팀(063-270-2833)으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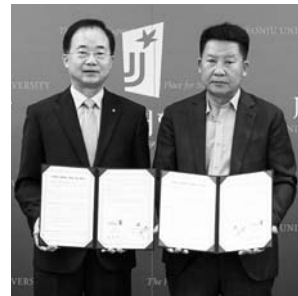
농공단지협의회와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전주대, 협약 맺고 일자리 창출·인재 양성 등 협의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8일 (사)전북농공단지협의회(회장 최태호)와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박진배 총장과 최태호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전북의 핵심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속 가능한 공동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연계사업 발굴 △지역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 △지역 인재 양성과 산

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신기술 R&D 공동 개발 및 상호협력, 기술 자문 및 인력 교류 등이 다.

박진배 총장은 “지역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사)전북농공단지협의회와 협력해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북농공단지협의회는 2005년 설립, 현재 전북 14개 시군에 분포한 57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1,000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고교학점제 대비... 교사 진로·학업설계 역량 강화

도교육청, 10월 5일까지 연구·준비학교 11곳서 기본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2023 교사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 기본연수'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기반으로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더불어 학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중 희망

학교 11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5일까지 학교별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진로화업설계지도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심리검사 기반의 자기이해 프로그램 운영 △전체 구성원의 상호 이해 프로그램 운영 △학생 진로화업설계 지도를 위한 교사 마인드 향상 △고교학점제 도입과 진로별 학업 계획 설계지도 등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3~14일에는 중학교 3학년 지도 교사 중 희망 교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동일 연수를 실시해 3학년 2학기 진로연계교육에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및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해 학습하게 되므로 진로·학업 설계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진로·학업 설계를 안내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교사 지도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교사 진학지도 역량 높여 9월 수시전형 대비

도교육청, 고3 담임교사 연수... 내달 1일 대입지원단 연수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월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고3 담임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27일에는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보다 많은 교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동일한 강의 내용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해, 대입상담 프로그램 활용법과 수시 상담 기법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일고 김훈 교사가 수시 대입상담프로그램 활용법'을, 부산부경고 조국희 교사가 수시 진학 상담 기법'을 강의했다.

고3 담임교사 연수에 이어 오는 7월 1일에는 학교별 진학부장과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대입지원단 합동 전문 연수가 마련됐다.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은누리홀에서

진행되는 대입지원단 진학부장 연수에서는 보다 심화된 지역별 수시 지원 전략을 모색한다.

지원 전략 안내를 위해 역시 대교협 상담교사인 인천송덕영고 유성호 교사와 광주대동고 오창욱 교사가 각각 수도권권과 지역거점국립대학의 지원 전략을 분석·안내한다.

또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자료 개발팀의 조창영(고창북고) 팀장이 도내 대학의 수시 지원전략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9월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대학 입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입지원단을 주축으로 교사 연수와 입시설명회를 매주 개최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진학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비전대, 지역특화 산학협력 융합 연구과제 선정 평가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우병훈)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산학협력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책임자와 참여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역특화 산학협력 융합연구과제 선정 평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 산학협력 융합연구과제는 혁신역량을 보유한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프리를 활용해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통한 기업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전주비전대학교 가족회사 및 도내·외 소재 산업체의 연구개발자원을 통해 산학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미래 수요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대학의 교수와 기업의 R&D 인력이 협력해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10여 건의 과제를 수행해 도내 산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함께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

올해 산학협력 융합연구과제는 전북 혁신성장사업인 에너지 신산업 기계 분야는 물론, 대학의 특성화 분야인 융복합 소재, 미용건강, 융복합, 인문사회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 수요조사를 했다. 접수된 12개의 과제계획서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분야별 외부 전문가위원이 평가를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연구비를 차등 지원받아 올해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근상 산업기술연구소장은 “산학협력 융합연구과제를 통해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특화 산학협력 융합연구과제 지원을 통해 산업체 맞춤형 코업 참여 유인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기업 지원 방안과 연계한 대학과 산업체 간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7~29일 창조나래(별관) 회의실과 익산 꿈빛놀이터에서 2023 전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 '진행 중'

정보경진·e스포츠 등 18종목 운영... 오늘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29일 창조나래(별관) 회의실과 익산 꿈빛놀이터에서 2023 전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대회 전북예선을 겸한 것으로, 총 220명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참여했다.

대회 종목은 △아래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로봇코딩, SW 코딩, 스마트검색 등 정보경진 부문 8종목 △키넥트스포츠육상, 오델로, 마구마구마스터, 스워드볼링, 풀카이즈, 모두의 마블, 팀파이트택티스, 클레시로알 등 e스포츠

부문 8종목 △한컴타자, 카트라이더 등 지역대회 2종목 등 모두 18종목이다.

특히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시각장애와 지체장애학생은 물론, 중도중복장애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또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일반학생이 한 팀을 이뤄 참여하는 경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도 예선전 및 지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는 교육감상이 수여되며, 9월 실시되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전북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여름방학 이용 강의·실습실 전면 리모델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우병훈)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여름방학을 이용해 강의실 및 실습실을 전면 리모델링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생들의 캠퍼스라이프의 전반적인 시간을 보내는 창조관, 성실관, 봉사관, 우정관 등 15곳의 환경을 개선한다. 강원창 사설담당관은 “이번 리모델링은 AI(챗GPT, 바드, AWS)가 선도되는 혁신적인 산업혁명시대에 발 맞춰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니즈를 반영해 최첨단 학습현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모든 공사 일정은 방학 중에 안전하게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구 총무처장은 “이번 리모델링은 문제중심학습, 시뮬레이션센터 시설 등 능동적 교수학습방법에 적합한 교육인프라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